

WTO 가입으로 우리기업의 진출 전략 새로 짜야

지난 15일 중국과 미국 두 나라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13년간의 기나긴 줄다리기 협상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비준과 135개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중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WTO 가입에 제일 까다로운 조건 제시와 함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외국인투자 정책 전면 수정 예상

중국의 WTO 가입은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퇴출이 가능해짐으로써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산업구조 고도화를 유도할 것이다. 중국의 선별적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자국 산업구조를 피하고자 하였던 기존 외국인투자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통신, 영상, 관광·호텔, 유통서비스업, 은행·보험시장의 진출이 허용됨으로써 지난 1998년 1월 수정 발표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가운데 제한 혹은 금지업종을 재분류할 전망이다. 금지 혹은 제한업종이 대폭 축소되는 한편,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장려업종을 확대함으로써 현행 중국의 외국인투자 업종별 제한은 Negative System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이미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WTO 가입을 위한 합의문 이행조치로써 10개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제한 완화 혹은 철폐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내국민대우의 원칙 하에 기존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세제우대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비 수입시 관세 면제 조치 등)에 대한 점진적인 축소·철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WTO 가입,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 전망

올해 들어 중국은 내수침체와 함께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수출과 외국인투자도 크게 위축되었다. 중국 경제의 고질병으로 알려진 국유기업

의 경영난,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가 갈길 바쁜 중국경제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가 중국에도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불안은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예상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수 차례에 걸쳐 위안화 절하설이 유포되면서 세계를 긴장시키기도 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은 이러한 중국 경제의 불안감을 일시에 해소할 만한 대형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당장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호조를 보일 것이고, 이를 발판으로 당면과제인 디플레 해소는 물론 경제성장도 하강곡선에서 벗어나 최소한 안정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다시 성장패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¹⁾. 그리고 이러한 경제 호조는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을 불식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대외신인도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WTO 가입에 대한 반대급부도 만만치 않다. 우선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금융, 보험, 통신 등 서비스분야의 중국 산업이 위축될 것이며, 경쟁력이 취약한 국유기업의 잇따른 도산으로 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대거 진출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여 어느 정도 실업자 흡수가 가능하다. 어차피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라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시킴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꾀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외에도 중국의 국제무대에서의 정치·경제적 지위 상승,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도 제고 등 WTO 가입을 통해 얻는 이득이 손실보다 훨씬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점이다.

우리에게 기회보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중국 WTO 가입은 중국의 관세 인하 및 시장 개방 확대로 당장 우리의 수출과 투자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보다는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기업들과의 경쟁심화로 미국 등 제3시장에서 우리제품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더욱 앞선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과 쌍무간 무역협정을 통해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중국과의 교역 측면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대 중국 투자 증대는 진출 기업의 설비자재와 원부자재의 중국으로의 반입이 늘어나면서 수출 증대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 러시로 중국 상품의 품질 제고 및 가격경

1) 중국 경제연구기관들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매년 3.0% 포인트의 플러스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으며, 메릴린치 아시아 연구소도 매년 0.5% 내외의 추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쟁력 확보는 우리에게는 최대 위협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많은 국내 연구기관들이 미국 등 제3국 시장에서의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투자측면에서도 중국 WTO 가입이 우리에게 그다지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 투자 법규와 제도상의 공개도(openness), 투명성(transparency) 제고로 국제적 룰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고 투자환경의 개선 내지는 불확실성 감소를 기대 할 수 있다는 점과 시장개방폭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면면히 살펴보면 통신설비, 석유화학, 고급 가전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뛰어든 분야가 그리 많지 않다. 시장개방이 초점이 제조업보다는 금융, 보험, 법률 등 서비스업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시장 선점을 노리고 기술이전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경우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앞당겨질 것이고 중국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우려도 있다.

우리의 對중국 투자, 적극적이되 치밀한 전략 필요

1998년 이후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는 저임과 중국 시장 선점차원에서의 유인요인(pulling factors)보다 IMF 이후 국내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구축요인(push factors)이 더욱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또한 현재 중국의 정치적 역량을 감안한다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보다 과감한 중국 진출이 요망된다. 다만, WTO 가입으로 중국의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면 연해지역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고 선진기술 사용·보급확대 및 싼 원부자재의 수입증가 등으로 중국기업의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 입지 선정과 투자업종에 대한 경쟁기업의 기술수준, 시장 수급 전망 등 보다 치밀한 투자 전략 수립이 요망된다.

중국의 WTO 가입은 향후 비단 우리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각국 기업들의 진출 러시를 가져올 것이므로 중국 시장은 세계 각국 기업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될 것이다. 이는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동시에 겸비한 세계 일류의 상품이 아니면 중국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외국기업과는 품질면에서 중국기업과는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우리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은 중고급 제품 위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진출 전략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對중국 투자 활성화로 인한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외국기업보다는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통한 최고 수준의 제품으로 승부를 걸지 않으면 중국시장에서의 우리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의 우리 기업의 일반적 투자 패턴인 중소기업의 노동집약적 분야의 투자는 곧 한계를 보일 것이다.

중국 WTO 가입에 따른 문호개방은 우리기업들에게 커다란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경제체제가 갖는 제도상의 모순으로 인한 경영부진은 소위 '관시(關係)'와 편법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지만 경쟁에서의 낙오는 다시는 살아남기 어려운 수렁으로 빠져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임전불사의 각오로 WTO 가입 이후 시장의 변화 흐름을 직시하고 對중국 진출 전략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全善俊】